

태안 기름유출 타르 피해 전남지역 어민 보상 막막

1년 지나도 피해 규모조차 파악 못해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로 타르 피해를 입은 전남 서남해안 지역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1년3개월여가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서해안 기름유출사고로 전남에서 발생한 타르 피해 건수는 무안과 영광, 신안, 함평 등에서 김 양식 어업 피해 350여건을 포함해 모두 2만5천여건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피해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특히 김 양식 부문은 물론 전체 피해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맨손어업 분야 역시 현재까지도 간접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전체 피해규모도 확정되지 않는 등 보상청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손해사정업체에서 현장 조사를 벌이고는 있지만 음식점, 숙박업소 등 비수산(관광업)분야의 경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 보상청구에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남도는 오는 5월8일로 예정된 보상청구 접수 마감기 지나야 구체적인 피해건수가 확정되고, 보상 청구 작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최경주 시범 퍼팅

최경주 선수가 지난 2007년 11월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상한 후 고향 완도를 방문, '최경주광장'에서 퍼팅 시범을 보이고 있다.



골프 꿈나무들 맹훈련

스타탄생을 꿈꾸며 맹훈련중인 함평 대동향초초 골프부 선수들.

최경주의 완도 '골프 메카'를 선점하라 신지애의 함평

세계적인 프로골퍼 '탱크' 최경주(39·나이키골프) 선수와 '지존' 신지애(21·미래에셋) 선수를 배출한 완도군과 함평군이 골프 특성화지역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은 '골프아카데미'와 전남지역 최초 '초등학교 골프부' 창립 등을 통해 골프 꿈나무 발굴과 지속 성장 토대인 중·고·대학 입학 및 유망종 프로, 신인영 프로, 이경훈 세미프로 등 국내 최초로 현역 선수가 지도하는 골프 학습이 운영된다.

또 전국 초등학교 골프 유망주를 선발하고, 중·고교에도 골프부를 창단해 골프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골프 캠프의 영어마을화로 골프 레슨과 동시에 원어민 교사를 통한 영어교육까지 병행하는 프로그램도 제공할 방침이다.

완도군은 19일 '최경주 골프 아카데미'를 설립, 운영키로 했다. 이 아카데미에서는 최경주 선수와 미국프로골프(PGA) 현역 선수가

회상 레슨을 하고, 완도출신 PGA 채근봉, 서정희 및 유남종 프로, 신인영 프로, 이경훈 세미프로 등 국내 최초로 현역 선수가 지도하는 골프 학습이 운영된다.

또 전국 초등학교 골프 유망주를 선발하고, 중·고교에도 골프부를 창단해 골프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골프 캠프의 영어마을화로 골프 레슨과 동시에 원어민 교사를 통한 영어교육까지 병행하는 프로그램도 제공할 방침이다.

완도군은 19일 '최경주 골프 아카데미'를 설립, 운영키로 했다. 이 아카데미에서는 최경주 선수와 미국프로골프(PGA) 현역 선수가

회상 레슨을 하고, 완도출신 PGA 채근봉, 서정희 및 유남종 프로, 신인영 프로, 이경훈 세미프로 등 국내 최초로 현역 선수가 지도하는 골프 학습이 운영된다.

또 전국 초등학교 골프 유망주를 선발하고, 중·고교에도 골프부를 창단해 골프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골프 캠프의 영어마을화로 골프 레슨과 동시에 원어민 교사를 통한 영어교육까지 병행하는 프로그램도 제공할 방침이다.

완도군은 19일 '최경주 골프 아카데미'를 설립, 운영키로 했다. 이 아카데미에서는 최경주 선수와 미국프로골프(PGA) 현역 선수가

이 학교는 함평군의 지원으로 지난 2006년부터 골프연습장을 갖추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골프수업을 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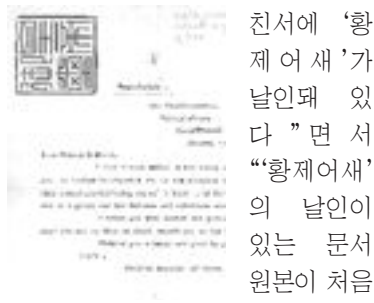
홍원표 교장은 "올 상반기 전남도 대회 출전을 시작으로 각종 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라며 "전국 최고의 골프 명문 만들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초등학교 골프부 창단으로 함평골프고로 연결되는 골프 선수 연계 육성 밑그림이 그려졌다"며 "중학교 및 창단과 골프대학 유치 등을 통해 골프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도=정은기자 jechung@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고종 '황제어새' 날인 문서 원본 찾았다

고종 황제가 비밀 친서 등에 사용한 국새(국가 인장인) '황제어새'(皇帝御璽)가 발굴된 가운데 황제어새가 찍힌 문서 원본이 처음으로 확인됐다.(사진)



다"고 19일 밝혔다. /연립뉴스

또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1907년)를 당한 이후에도 최소한 2차례 이상 비밀리에 어새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할버트박사기념사업회(회장 김동진)는 "고종이 할버트 박사에게 보낸

친서에 '황제어새'가 날인돼 있다"면서 "'황제어새'의 날인본이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Advertisement for '빛의만평' (Light's Review) by Kim Jung-do, featuring a cartoon illustration of a man and a woman.

"차명계좌 주인은 예금명의자"

대법 판결... "실제 돈의 소유자에 귀속" 기존 판례 뒤집어

차명계좌의 예금주를 따로 인정해선 안되고 금융실명제에서는 예금 명의자만 예금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금융실명제 하에서도 예금 출원자, 즉 실제 돈의 소유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으면 예금 출원자를 예금주로 볼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9일 이모(48·여)씨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06년 2월 남편 김모씨와 함께 모 저축은행을 방문해 남편 명의의 통장을 만들고 자기 명의로도 4천200만원을 예금했으나 7개월 뒤 예금 등 채권 지급이 정지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김씨 명의의 예금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줬으나 이씨 명의의 예금에 대해서는 실제 예금주가 남편이라는 이유로 예금을 반환해주지 않았다.

이씨는 예금주는 자신인 만큼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4천200만원은 김씨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뒤 입금됐고 ▲김씨가 거래신청서를 작성했으며 ▲김씨 도장이 거래인감으로

사용됐고 ▲비밀번호가 김씨 명의의 다른 계좌와 동일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예금보험공사와 같이 김씨를 실제 예금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는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봐야 하지만 예금출원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면 실제 돈을 낸 사람을 예금주로 할 수 있다"며 "예금주 이씨가 아닌 남편을 실제 예금주로 하는 약정을 했다고 판단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예금명의자만 예금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연립뉴스

광주시 여성 재취업 지원 23일 일자리 설명회 개최

신영철 대법관 검찰에 고발 직권남용·위증 혐의

회사를 그만 둔 여성들에게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정보와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일자리 설명회'가 열린다. 광주시와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새일본부) 공동으로 개최하는 '여성심 잡고(JOB GO) 희망 UP' 여성일자리 설명회가 23일 오후 1시부터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린다.

"촛불재판 관여" 사건으로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신영철 대법관이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고발됐다.

지난해 광고불매운동을 주도했던 언론노동 단체인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김성근 대표와 회원 7명은 이날 오후 "신 대법관은 고위법관으로서 위법하게 재판에 관여해 선량한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신 대법관이 지난 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판사들에게 진화조차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을 했으며, 이메일 등을 통해 '촛불재판을 계속 진행하라'고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립뉴스

Advertisement for '결산공고 접수안내' (Settlement Notice Reception Guide) with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해산공고' (Liquidation Notice) for the Kwangju Branch of the Kwangju Chamber of Commerce.

Advertisement for '건설면허' (Construction License) for '부성 M & A' with contact details.

Advertisement for '수출농산물 안전지킴이' 채용 공고 (Recruitment for Export Agricultural Product Safety Guardians).

Advertisement for '태양열 온수기를 저가로 드립니다!!' (We offer solar water heaters at low prices!!) by Daejin Solar.

Advertisement for '전통 침·뜸 공개강좌' (Traditional Acupuncture and Moxibustion Public Course) by CH China Culture Academy.